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2006 제3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778•7427 FAX 02•778•7427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6. 7. 10 발행인 : 한홍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동' 펼치기로

생명수호·저출산 해소 위해 노력하기로

● 한국평협 제1차 상임위 '생명존중 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7월 1~2



☐ 실는 순서 ☐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국 사도직 단체>

- ☐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 ☐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 레지오 마리에 서울 무염시태 세나투스
- ☐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협의회
- ☐ 한국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
-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일 서울 상지 피정의 집에서 '2006년도 제1차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생명수호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평신도 사도로서 직분을 다하기로 했다.

각 교구 평협 회장단과 교회운동·단체장, 서울평협 임원진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홍순 회장 주재로 열린 이번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에서는 생명존중과 저출산 문제, 혼인과 이혼문제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

상임위원회의의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생명과학과 가톨릭교회 윤리'(이동익 신부, 가톨릭대) 강의를 들은 데 이어 이혼과 낙태, 저출산 등을 주제로 한 분임토의와 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 큰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생명존중 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회장단회의를 갖고 성체성사의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기기증 운동 확산에 나서기로 한 서울평협은 이날 전국 상임위에서 교구 성체대회 취지에 부응코자 사제성화의 날에 사후 장기기증서를 봉헌함으로써 생명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교구

사제단에 발맞춰 평신도들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 본당과 단체 차원에서 장기기증을 독려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군 영세자 신앙생활 지원사업 보고도 들어

상임위원회는 또 군 영세자 신앙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서울평협의 보고도 들었다.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 단장인 팽종섭 서울평협 부회장은 "한해 2만명 이상 청년들이 군에서 세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제대 후 신앙생활에 대한 교회차원의 사목적 배려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서울대교구 평협은 군 영세자의 명단을 파악해서 각 본당에 연결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1차로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으로 이사업을 돕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평협 2006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의는 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단과 만남을 겸해 9월1일부터 이틀간 부산 은혜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염수정 주교, 생명문화 창달에 노력 당부

염수정(서울대교구 총대리 겸 주교회의의 평신

도사도직위원장) 주교는 민병덕 신부와 공동집전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이동축 일 파견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생명문제는 가톨릭신자라면 누구라도 의견이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



▲ 상임위원회의에 참가한 각 교구평협 임원과 전국 단체장, 서울평협 임원 등이 강의를 듣고 있다.

